

노사상생이 지역발전 원동력

◎ 금호타이어의 살길

勞 생산성 키우고 使 고용불안 해소

금호타이어 노사가 지난달 21일 광주와 곡성공장의 고용유지를 위해 신규 시설투자와 중앙연구소의 광주 유치 등에 합의하면서 고용불안이 해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노사는 특별합의서를 통해 최근 신규투자가 부진했던 광주와 곡성공장의 설비 투자비로 5년 동안 4천 5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 중앙연구소의 확장 이전과 관련, 광주공장내 연구소 현행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완제품과 시제품 평가 등 제조와 관계된 부분의 시설과 인력은 반드시 광주공장에 유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고용유지를 위해 국내 총생산량을 2006년 수준(중량 기준)으로 3년 동안 유지하기로 하면서 노조원

올 임금 협상 무분규 타결에 지역민들 박수  
강성 노조 이미지 벗고 글로벌 기업 거듭나야

의 고용불안은 물론 최근 제기됐던 지역의 산업 공동화 우려를 어느 정도 씻을 수 있게 됐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올해 임금 협상 타결은 노사가 자기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내세운 게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향후 상생의 디딤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노조측은 지난해 흑자폭이 대폭 감소한데다, 올 1·4분기 적자 등 회사의 수익성과 경영실적 악화에서 나타난 회사 경쟁력 저하의 심각성을 인정하

고, 경쟁력 강화를 요구하는 사측의 주장에 공감했다.

사측에선 해외공장 증설과 판매부진에 따른 재고량 증가, 연구소 이전 등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 임금인상에 대한 조합원들의 기대치를 충족하기 위한 성의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기아차가 '정치파업'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부분파업에 돌입한 상황에서 강성노조의 대표주자였던 금호타이어 노조가 무분규로 협상을 타결, 지

역 경제계에 신선한 소식을 던져줬다"면서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건전하고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해 회사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점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호타이어 노사는 높은 인건비와 제조원가에 걸맞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노조는 집단이기주의 수준에 이른 강성노조의 이미지를 떨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측과의 새로운 협력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와 함께 해외공장과의 경쟁, 원가절감, 고용안정, 근로조건 개선 등을 담은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동하는 것은 사측의 몫이다. <끝>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멜론주 맛보세요

달양 멜론 산지 직판행사를 하고 있는 농협 하나로클럽 양재점이 5일 과일매장에서 멜론주를 담그는 행사를 열고 있다. 멜론주는 잘 익은 멜론을 깨끗이 씻어 꼭지만 제거한 후 알맞은 크기로 잘라 껍질째 용기에 넣고 소주를 부어 밀봉한 뒤 1주일 정도 숙성시켜 마시면 된다. /연합뉴스

'맞춤형 농정' 기초작업 농가 등록제

나주 반남면 등 전국 9곳 시범 실시

농가유형별 '맞춤형 농정'의 토대가 될 농가등록제가 나주시 반남면 등 전국 9개 읍·면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된다. 농림부는 하반기 각 도별 1개씩 모두 9개 읍·면, 7천700여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등록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사업 지역은 ▲나주시 반남면 ▲부안군 행안면 ▲경기 평택시 오성면 ▲강원 인제군 서화면 ▲충북 충주시

살미면 ▲충남 부여군 남면 ▲경북 칠곡군 북삼읍 ▲경남 창원군 대지면 ▲제주시 조천읍 등이다. 농가등록제는 농가의 주민정보, 경영 및 농지이용 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관리하는 제도로 일본과 유럽연합(EU), 미국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대상 지역내 농가가 등록을 원하면 농장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

리원 출장소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입의 등록 방식이므로 의무는 아니다. 농림부는 우선 성명·주민번호·연령 등 주민정보와 주소·지번·지목·재배작목·수확면적·농업수입·축종·사육두수·출하량 등 농지·축산 정보, 전업·부업 여부 판단에 필요한 농업외소득 정보 등의 기초 사항을 우선 등록토록 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등록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등록 정보의 범위도 영농 기술 교육 이수 여부, 창업농 또는 후계농업인 육성 여부, 농민 정책자금 수혜 상황 등 특정 농민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보다 구체적인 것들로 점차 넓혀갈 방침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환관리'우수기업 인증  
광주·전남 중기청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박춘근) 수출지원센터는 자체적인 환위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환위험 해지방법을 활용해 환위험을 관리하고 있는 수출중소기업을 지난 5월부터 환위험관리 우수기업으로 인증해 주고 있다.

인증된 수출업체는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우선선정 지원, 수출금융지원 확대, 수출보험 및 보험지원 확대,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 및 수출금융 지원기 가점부여 등 지원을 받게 된다.

이 인증제도는 자체적인 환위험 관리시스템 구축상태(40점)와 환위험 해지의 충실도(60점)를 종합평가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기업을 환위험관리 우수기업으로 인증(인증기간 2년)하고 있다.

광주지역에서는 (주)무등(광주 소촌공단 소재)이 지속적인 환율하락 영향에 대비해 모범적으로 환위험 관리를 실행하고 있어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바 있다.

환위험관리 우수기업으로 인증받기를 희망하는 지역내 수출중소기업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062) 360-9192.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대출받은 中企들 땅투기에 돈 썼나

금융연, 대출 때맞춰 어음교환량 늘어 가능성 제기

지난해말부터 급증했던 중소기업 대출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기업들이 어음 발행을 늘려 운전자금을 조달하고 중기대출로는 주택 구입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부무소속 신학용 의원은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연구원에 의뢰해 제출받은 보고서를 토대로 "최근 급증한 중소기업 대출 증가분 중 일부가 편입으로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금융연구원은 "금융권 신용공여 관련 잠재위험 요인과 대응방안" 보고

서에서 "중소기업대출이 급증하는 동안 약속어음 교환량도 늘어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금융결제원이 집계하는 약속어음 교환액은 올 들어 5월까지 723조원으로 2006년의 550조원을 이미 훌쩍 넘어섰다. 약속어음 교환액이 2004년 568억원, 2005년 395억원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이상 징후가 감지된 것이다.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은행권 중기대출 증가액은 4월 한달간 7조9천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5월에 7조1천억원대로 높은 수준을 유지

했다. 금융당국의 경고에도 지난해 하반기 주택담보대출 규제 이후 점차 상승곡선을 그리는 분위기다.

금융연구원 김동환 연구위원은 "중기대출이 크게 늘어나는 동안 어음발행 규모가 늘어난 것은 중기대출이 기업운전자금이나 부동산 투기 등 비생산적인 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2006년 하반기와 2007년 상반기에 설비투자가 많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소기업들이 운전자금을 어음을 통해 결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그만큼 중기대출금은 어디로 이용됐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못했다.

광주지역이 68.8%로 전월보다 0.4%P 하락한 반면 전남지역은 72.7%로 전월보다 1.9%P 올랐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월대비 0.9%P 상승한 추세이나 전국 중소기업 평균인 71.2%에 0.2%P 미치지 못해 열악한 환경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광주·전남 중기 가동률 소폭 늘어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가동률이 소폭 상승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영태)가 중소기업 106개 업체를 대상으로 생산설비 평균가동률을 조사한 결과 5월중 평균

가동률은 전년 동월대비 0.5%P, 전월대비 0.9%P 상승한 71.0%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수·수출부진, 원자재가격 급등 및 원자재수급차질 등으로 인해 정상가동률(80%)에는 미치지

현대차 4만9,368대·기아차 2만6,288대 판매

美 시장 점유율 5%씩 넘었다

현대·기아차가 지난 6월 미국시장에서 점유율 5%씩 처음으로 돌파했다.

5월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지난달 미국시장에서 현대차 4만9천368대, 기아차 2만6천288대 등 총 7만5천656대를 판매해 시장점유율 5%를 넘어 5.2%를 기록했다.

지난달 미국 자동차시장의 전체 규모는 145만5천223대로 현대·기아차는 추정하고 있다.

통상 업계에서는 시장에 진입한 뒤 시장점유율이 3%를 초과하면 5% 달성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5%를 초과할 경우 10%대로 진입할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5%'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지금까지 현대·기아차가 미국시장에서 기록한 최고 월간 점유율은 지난해 7월의 4.9%였다.

지난해 7월 한달간 미국 자동차시장 규모는 149만3천78대였으며, 현대·기아차는 현대차 4만7천205대, 기아차 2만6천429대 등 7만3천634대의 차량을 미국시장에서 판매했다.

아울러 현대·기아차의 올 상반기 미국시장 점유율은 4.7%로, 이 역시 지난해 시장점유율 4.6%에 비해 소폭 높아졌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올초 제시한 미국시장 점유율 목표치로 각각 3.4%와 2.2%를 제시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중소 광주·전남지회  
본부체제로 전환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회가 5일부터 지역본부(본부장 강영태) 체제로 전환하고 대표적 지역경제단체로 역할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3일 정기이사회를 갖고, 전국 13개 시·도에 설치돼 있는 지회를 '지역본부'로 개편하기로 했다.

지역본부 관계자는 "중앙회 사무국 역할을 치중했던 기존 지회의 활동영역을 넓히고 출장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a clothing store featuring a woman in a white dress and text: '여름 신상품 30-50% SALE'.

Advertisement for 'MODISH' furniture store featuring a living room scene and text: '모디쉬갤러리 Sale'.